

# 臺師大文學院韓國學與語文學分學程 2024年韓國探訪計畫

## 研究報告書

主題：‘천하’에서 ‘동아시아’로: 한국 주체성 문제의 반영과 해결

동아시아과 4학년 백지유

### 一、研究背景與動機

2014년 7월 30일, 한국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개봉하여 단기간에 한국 영화 역사상 여러 가지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 명량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이면에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명량해전(鳴梁海戰)은 16세기 **임진왜란**(壬辰倭亂) 중에 한 해전이다. 임진왜란은 명나라, 조선과 왜국 간의 중요한 전쟁이다. 중국에서는 조선의 역(朝鮮之役), 일본에서는 문록경장의 역(文祿慶長之役)이라고 부른다. 이 전쟁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발생했다. 일본이 한국과 중원을 탐내는 것은 중원이 지배하는 **정치질서**를 흔들려는 일본의 의도를 상징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은 ‘천하’라는 지역 정치질서가 점차 ‘동아시아’로 전변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또한, 명량 한국에서의 성공은 현대 사회가 이 시대의 한국적 **주체성**을 강조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영화는 현대 한국인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한국의 주체적인 정체성과 인식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영화 표현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 교육**을 하는 데도 나타난다. 박물관은 문화 교육의 장역으로서 한국인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역사지식을 받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다. 현재 한국 박물관은 대부분 정부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전시 주제, 전시 중의 역사 서사 방법을 보면 현대 한국이 **천하질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민족 국가 주체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조작을 알 수 있다. 각국의 평등하고 주체적인 동아시아 개념은 외적이 침범하는 조선시대에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의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의 역사를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한국의 국족정체성은 계속 도전을 받았다. **지리적 요인** 때문에 한국은 **중일 양국 사이에 끼어** 국가 지위를 유지할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은 역사가 남긴 중국의 **종속국**, 비대등 정치적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에서는 식민의 상처에 직면해 국가 정체성을 재건해야 한다. 한마디로 중일 양측을 상대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것은 그동안 **국격을 낮추고** 주체성을 강화해야 했던 문제다. 건국한 지 백년이 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한국 정부와 사회가 노력을 볼 수 있다.

### 二、研究目的與問題

본 연구는 한국의 주체적 문제와 해결을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출발하여 지역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이 사건이 조선의 주체성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며, 이어서 그 후 한국이 줄곧 존재해 온 주체성 문제를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사학의 관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글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각도에서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임진왜란의 발생은 어떤 복잡한 지연 요소가 있는가? 임진왜란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적 지위의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가? 이후 역사적으로 한국은 어떤 주체적 위기에 직면했는가? 현대 한국 사회는 어떻게 문화 재현을 통해 이런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三、研究辦法及研究內容

본 연구는 주로 **문헌분석법**과 **현장연구법**을 채택한다. 주로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16세기의 지역질서로 임진왜란 이전부터 중국 주도의 천하 질서를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일본의 도전이다. 이 장은 임진왜란의 발생이다. 일본은 조선에 출정하여 중화질서를 흔들려고 했다. 따라서 지역질서는 점점 '천하'에서 '동아시아'로 전환됐다. 세 번째 부분은 명량이 반영한 한국의 주체성 문제이다. 네 번째 부분은 주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인 대중사학, 문화교육이 현대 국족의 정체성과 한국 당국의 이데올로기 노출을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인가. 다섯 번째 부분은 결론이다. 역사 부분은 주로 문헌분석법을 사용하고 현대 부분은 현장연구법을 결합하여 필자가 직접 한국의 문화 교육 장소를 방문할 것이다. 전쟁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박물관, 고궁박물관, 경복궁, 광화문을 포함한다.

### 四、研究成果

#### 1. 16 세기의 지역질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16 세기 이전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역사적 개념이다. 이런 질서로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며, 조선, 베트남, 류큐 등 주변국을 중국의 가신 또는 조공국으로 삼아 조공(朝貢)제도를 통해 중국과 소통하고 무역을 하고 있다. 이 질서는 또한 동아시아에 대한 유교의 영향, 특히 "의(禮)", "이(義)" 및 "정통(正統)"의 개념을 반영한다.

16 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주로 중국의 명나라와 일본의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변국들은 이 두 세력 사이의 균형과 이익을 추구하였다. 명나라는 16 세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핵심이자 지도자였다. 명나라는 원나라의 통일영토를 계승하고, 홍무제(洪武帝) 시대에

조공제도와 유교문화를 매개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확립하였다. 문명과 가치. 명나라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했는데, 영락제(永樂帝) 시대에는 정화(鄭和)를 서해로 보내 해상력을 과시했고, 정동제(正統帝) 시대에는 몽고과 일본의 침략에 저항했다. 명나라가 지배하던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15세기 초에 정점을 이루었으나, 명나라 내부의 정치적 부패, 경제적 어려움, 사회불안, 외압으로 인해 이 질서에 점차 균열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것이다.

명나라와 동시대의 일본 전국시대는 16세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변수이자 도전이었다. 전국시대는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며, 일본에는 많은 분리주의(割據) 세력이 등장하여 일본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이 동안 일본 사회는 무사 계급의 등장, 상업 활동의 변영, 도시화 과정, 총기 기술의 도입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본은 중국과 다른 정치, 경제,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전통 패권에 도전하고 지역 질서를 붕괴시키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일본과 중국의 서로 다른 **상무(尙武)문화와 무사도 정신**, 그리고 실용주의를 옹호하는 **양명학**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변국들은 16세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참여자이자 조절자였다. 주변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또는 그 밖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조선, 베트남, 류큐, 시암 등을 가리킨다. 이들 국가는 16세기 이전에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 류큐 등 국가는 명나라에 충성하고 시성과 포상을 받아들이며 중국의 보호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의 유교 문화와 외교 규범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시암 등 다른 나라들은 명나라에 맞서는 길을 택해 명나라의 시성과 포상을 거부하고 자신만 발전시켰다. 이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과 경쟁적 역할을 담당했다.

## 2. '천하'에서 '동아시아'로의 질서 전환: 일본의 도전

일본은 전국시대에 외부 확장을 시작했다. 16세기 중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과 명나라에 맞서 임진왜란과 최일의 난이라는 공격적인 전쟁을 벌여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 일본의 전국시대는 16세기 후반에 끝났지만,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일본이 지역질서에 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 전국시대의 배경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일본의 양명학과 무사도는 16세기 일본 사회변동의 산물이었으며, 일본이 권력을 장악하는 길의 이념적 기반이기도 했다. 양명학은 특히 전국시대에 일본에 널리 보급되고 적용되었으며, 많은 무사과 귀족들이 영감을 얻었으며 통일과 안정을 이루려면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양명학은 또한 전통적인 일본 무사도와 결합하여 충성, 용기, 인내, 절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윤리 강령을 형성했다. 무사도는 사무라이 계급의 행동 강령일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기도 한다. 무사도는 무사들 주인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충성심과 명예를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무사도와 양명학은 일본의 민족의식과 군사정신을 형성했지만 정치질서에 대한 생각이 제한는 못했다. '君君臣臣父父子子', '하위자가 상위자를 범할 수 없다'를 강조하는 중국의 세계질서에 비해, 전국시대 일본은 능력주의로 변모했다. 전통적인 윤리적 규범보다 개인의 능력을 더 강조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이 지배했었던 세계질서도 도전받을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시도이자 동아시아 역사의 큰 변화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고 과잉 군사력을 흡수하기 위해 대외 확장을 결정하고 조선과 명나라를 목표로 삼았다. 1592년 히데요시는 조선을 통해 명나라를 공격해 '攘夷'와 '천하'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약 16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다. 그의 군대 파견은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성과 평양을 점령하고, 조선 왕은 강제로 강화도로 후퇴하여 명나라에 도움을 구했다. 명나라와 조선의 합동 저항 속에서 일본군은 점차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부산 등지에 붙을 수밖에 없었다. 1597년 히데요시는 전쟁을 역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많은 병력을 조선에 파견했지만 여전히 명나라와 조선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때까지 일본의 새 정권은 철군을 결정하고 귀국하여 6년여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파병은 동아시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이는 중국의 세계 질서에 복종하려는 일본의 역사적 의지를 보여주는 주요 상징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 교류와 기술 보급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문화의 발전과 다양화를 촉진했다. **중국은 더 이상 지역 정치와 문화의 유일한 수출국이 아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질서는 임진왜란 이후 중국 중심의 '천하' 모델에서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동아시아' 모델로 큰 변화를 겪었다. '천하' 모델은 중국을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 중심지로 지칭하며, 조선, 일본,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수용하며, 조공관계를 통해 중국과의 평화와 무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질서란 동아시아가 더 이상 중국이 지배하는 **단극(單極)** 체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경쟁하는 **다극(多極)** 체제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명나라는 더 이상 스스로를 '천하'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그들의 힘과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 3. 명량: 영화의 한국 주체성 문제 반영

영화는 시각예술로서 관중의 감정과 사고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영화사학(影視史學)의 개념으로 대중의 중시를 받았다. 영화 명량에서 서술된 역사적 사건인 명량해전은 임진왜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결정적인 해전이다. 영화에는 한 시간에 걸친 해전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영화는 일본 해군의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탐욕스럽고 무도하며 일부 조선 관리들의 무능과 이기심도 반영했다.

영화사학의 개념 아래서 상업 영화인 명량은 관객에게 즐거움 시킨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교육**을 하는 것을 도 목표로 한다. 영화는 역사적 사건을 현대 사회와 연결해 **민족주의** 이념을 전달한다. 영화에서 이순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조선을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이는 조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정과 수호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정신을 반영한다. 더욱이 명량해전은 역사영화의 주제로서 임진왜란 전체에서 명나라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약화**시켰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조선의

자주성을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한국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실제로 임진왜란은 일본의 패권 도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위 향상**의 상징이기도 했다. 조선은 명나라와 종주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명나라가 전쟁에서 조선을 크게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완전한 종속국은 아니었다**. 이는 명나라의 개입 없이 조선이 독특한 거북선을 단독으로 활용해 승리한 명량해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쩌면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위해 침략한 전쟁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 저항하든, 중국에서 이탈하든 조선의 **자주성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사건은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의 형성과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로 두 방면이 있다. 첫째는 **반일**이고, 둘째는 **중국과 단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한국의 주체성은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 사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여전히 주체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딜레마를 반영한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실패로 조선이 국가로서의 자주적 능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조선시대의 오랜 유교에 대한 의존,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은 **한국의 주체성을 흔들리게 했다**.

#### 4. 대중사학: 한국의 주체적 문제 해결

말하자면 한국의 주체성은 현대가 반드시 해결하고 강화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 **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명량에서 우리는 민간 영화가 사회를 재촉하는 반일 의식의 성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어떤 조작을 했을까?**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박물관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문물 진열과 전시구역의 설계에서 **반일, 애국, 중국과 구별되는 태도**를 드러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쟁기념관은 사립 전쟁기념재단이 운영하지만 건립 계획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가동을 지시했고, 그 외 육군사령부가 대전으로 이전해 전쟁기념관 건립에 성숙한 여건을 마련했다. 전쟁기념관은 3층으로 나뉘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전쟁사를 서술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에 도착하면 장엄한 건물 외관과 일자로 늘어선 국기가 눈에 띈다. 이들 국가는 향미원조 중 자유민주진영의

참전국이다. 평화광장 앞에서도 625 전쟁을 기념하는 청동검 동상이 있다. 이런 특징에 근거하여 이때 나는 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만 기록하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625 전쟁은 현대 전쟁으로서 왜 고대의 청동검을 이미지로 삼았을까? 이 지문을 가지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나의 의문은 해답을 얻었다. 원래 전쟁기념관에도 한국 역사상 다른 중요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냉전시대의 베트남전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역사실에서는 선사시대 전시구역에서 청동검을 문화재로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삼형청동검은 한반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한국식 청동검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삼형청동검은 항미원조를 기념하는 조각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상징한다**. 그러나 청동검을 깊은 역사 상징으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사시대 한반도에서 청동검을 주조하는 동시에 중국도 대량의 청동검을 제조하였는데 다만 중국산의 아연함량이 비교적 적었기에 이런 차이는 청동검이 한반도를 위해 **자신을 제조하였음을 증명하였고 북방문명과 중국남방문명의 기원이 다르다**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동검 동상은 625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역사적 이미지**로서 한국 정부가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고조선과 중국 선사 문화를 구분하려는 이데올로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전쟁역사실에는 선사시대 외에도 중요한 임진왜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전쟁기념관에서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 (다른 박물관에서도) 이라고 불리며, "위국"이라는 두 글자의 사용에서 이 사건의 배후의 중대한 의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위"자는 보호의 의미로 일본이 **유해한 적**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국"자는 국가에 대한 대중의 귀속감, 정체성, 애국심을 응집시켰다. 놀랍게도 전시 밖에는 **거북선**의 초대형 전시품이 있었다. 거북선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무기로 특히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저항정신과 승리를 상징한다. 이러한 전시 규모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전쟁기념관 관람에서 반전뿐만 아니라 식민주의, 중화질서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대문형무소** 전시에서도 한국의 **반일 의지**가 드러났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쓰인 장역을 다수 보존해 감방, 사형장, 취조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복원과 보존을 거쳐 과거의 흔적이 많이 사라졌지만 시각적으로는 여전히 충격적이다. 가짜 인간 모형은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잔인한 행동을 보여준다.

실제 공간의 전시뿐만 아니라 민족저항실의 전시구역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정치범'의 수형기록 4천 857장이 전시된 이곳은 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압박감을 느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나와 그들이 다른 시공에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프다. 예전의 나는 한국이 일본에 매우 반대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서대문형무소에 와서 새로운 이해를 얻었다. 이곳은 일부러 슬픔을 조성하거나 증오를 선동하지 않았다. 이곳은 역사의 원형, 녹슨 철문, 허름한 감옥 설계도를 더 많이 보여주어 나로 하여금 이 역사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다. 대만에 비해 같은 일본 식민지 역사가 있지만 타이베이 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처럼 보존되지 않고 벽만 남아 있을 뿐 현대화된 문화창의공원로 개조돼 다양한 일본 음식의 상가가 들어서고 있어 아쉽다. 대만의 식민 역사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서 나는 이분법(二分法)으로 이데올로기를 반일과 친일로 잘못 나누었던 것 같아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는 한국의 반일개념이 문자 그대로 '일본 반대'라는 해석이 아니라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반일은 무조건 적인 반대는 것이 아니다. 도 자료 찾아보면, 한국어의 어휘에는 "반일"(反日) 과 "협일"(仇日)를 구분이 있다.

그럼 한국의 반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국의 반일은 국가의 주체성을 지키는 현실적 고려가 존재한다. 앞의 두 장에서 말해던 처럼 역사적으로 한국의 주체성은 반복적으로 파괴되었고 국격이 왜소화된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립각하는데 절대 불리하다. 그러나 역사 문화 교육을 통해 일치하고 국가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세울 수 있다. 침략역사를 강화하고 외적개념을 심화하여 모두가 공동의 운명과 경력을 갖고있는 상상을 갖게 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국민 사이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에서 더욱 단결하고 애국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일은 국가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도구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반일 개념에는 협력 요소가 숨겨진다. 한국은 일본과 이웃한 국가 안보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동시에 직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같은 자유민주국가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과 한국의 반일 개념의 차이를 만들었고, 한국에 있어서 반일은 최종적으로 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 단결을 위한 것이며, 또한 외교적으로 외부에 신호를 보내고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반일은 서양국가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서방가치의 자유민주를 한층 더

반대한다.

의도적으로 중국과 절단하여 중국의 신하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국이 주체성을 재건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라고 본다. 비록 천하체계는 수백년전의 정치질서지만 중국의 국력이 끊임없이 상승함에 따라 과거의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더욱 **패권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고있는데 이는 반드시 한국을 경계하게 할것이다. 대국과 소국 간의 권력이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더욱 평등한 지위를 강조해야만 불리한 국제 정세를 피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하면 과거 종속적 지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국이 **문화적으로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고궁박물관은 3 층으로 나뉘어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황실 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지하 1 층의 전시이다. 조선 시기의 예술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교하고 과학 문화도 매우 뛰어나다. 그중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는 아주 정교하여 1395 년에 고구려의 천문지식에 근거하여 완성되었는데 이는 중국 남송에 순우천문도(淳祐天文圖)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이다. 비록 14 세기의 작품이지만, 위의 각자와 성상 각도는 모두 매우 세밀하여 나로 하여금 중국 못지않다고 느끼게 한다. 이 밖에 1 층에 전시된 동궐도(東闕圖)도 장관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중화인데, 얼핏 보면 궁정의 지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다리, 울타리, 연꽃까지 포함돼 있어 중국 북송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의 느낌이 든다. 석각이든 그림이든 모두 디테일의 풍부함에 감탄했고 한국의 기예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고궁박물관은 한국이 문화를 강화한다는 **자부심**을 통해 중국과 **대등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다. 비록 조선은 중국의 종속국이지만, 공예, 과학에서 모두 **독립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한국의 문화 자주성을 느꼈지만 **모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교 문화**이다. 박물관은 삼인검의 전시구역에서 논어 경전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다. "為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眾星共之" 중화의 영향을 제거하려는 시도와 동시에 한국은 오히려 많은 유교를 보존하였다. 유교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쉽게 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교는 한국의 주체성을 해칠 수 있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유교 사상과 중화 문화로 각국을 '**문화납치**'하는

이 시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대응 현상을 관찰했는데, 한국의 연구에서 한국 유학을 **단독 맥락**으로 간주했다. 특히 조선시대 말기의 유학에 대해 한국 학자들은 전통적인 유교 이외의 서양 사상이 조선 유학자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데, 이는 중국과 대만 학계의 해석에 비해 중화의 영향을 약화하는 편이다. 이로부터, 한국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은 유교의 개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주체성문제에 호응했다.

또한 왕실 문화도 전통 문화 부흥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일본 식민지 시대로 인해 한국의 많은 전통 문화가 한때 사라졌다. 당시 일본 식민정부는 광화문을 이전해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었다. 사실 경복궁이 일본에 의해 파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탄 지 오래다. **한국 사회의 '일본 기억'**을 없애기 위해 1990년 복원공사를 시작했고, 1997년 정부는 조선총독부를 철거했다. 식민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속감이 혼란스러운 한국 국민에게 국가는 **'공동의 역사'와 '공동의 전통'**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광화문은 제자리에서 재건된다. 총독부 철거는 어둠과 지옥을 대표하는 식민지 시대에서 멀어졌고, 경복궁 복원은 **전통의 회복, 국가 정상화**를 상징한다. 한국의 주체성도 점점 회복되고 있다. 탈식민지화 외에도 경복궁의 복원은 **북경 고궁과 비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정궁으로 북경 고궁보다 오랜 역사를 자랑했다. 그러나 한국은 항상 역사적 이유로 중화문화의 부속과 연장으로 경시되거나 심지어 부정된다. 경복궁의 복원은 바로 한국의 유구한 역사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못지않다. 경복궁에 있을 때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볼 수 있는데, 날씨가 추워도 **한복**을 입고 이곳저곳을 구경한다. 경복궁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한국인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역사 문화 유산뿐만 아니라 현대의 한국도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한다.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는 마침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시**였다. 이 전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시명은 동행이라고 하다. 동행라는 단어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다"**는 이미지를 띠고있으며 **"따라간다"거나 "인도"**하는것이 아니다. 전시는 1953년 한미 공동방어조약이 체결된 이래 한국은 안보, 공중보건, 의료, 농업 등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한미동맹은 정치, 경제, 문화, 인문교류 분야로 협력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한미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연대가 아니다. 이 전시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를 주로 기록하지만 전후 **불황기부터 오늘날까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한국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은 세계에서 정치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로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확대되었음**을 증명한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 질서에서 지배당하는 쪽이 아니다. 이는 상설 전시에서도 볼 수 있다. 상설전시에는 **냉전 이후 한국의 해외 파병** 지도가 전시돼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됐다. 나는 파병이 국가의 **실체주체적지위**를 아주 잘 증명할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대는 국가의 **구성중**의 하나이고 파병은 한국이 국가로서 충분한 **동원력**과 실력을 갖고있음을 대표하기때문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후 헌법**은 군대 등 전쟁 때 사용될 수 있는 무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현재 무력은 **자위대로**, 해외 파견, 예산, 장비는 모두 법률의 엄격한 구속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전시의 지도는 한국이 **높은 자주성을 가진 국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문화 교육 아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과 정체성을 강화했다.

전쟁기념관도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여를 언급하며 군 외에 의료지원팀을 파견해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견된 태권도 지도단은 태권도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지원팀을 만들어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전쟁기념관은 한국의 베트남 건설이 **남베트남 국민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나를 좀 **의심**하게 한다. 왜냐하면 나의 다른 학습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폭행에 대한 역사적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기때문이다. 여하튼 식민주의에서 벗어난후의 한국은 여러 방면의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이런 성과에 대한 선전은 한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신임감과 자람감을 제고시켰다. 전시에서도 베트남전 이후 한국은 베트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은 베트남 정부의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한국이 평화, 인도를 숭상하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한국이 **'도울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은 역사박물관 상설전시에서 볼 수 있다.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의외로 전시구역에는 한류스타 앨범과 응원봉의 전시 부분이 계획돼 있다. 심지어 노래와 단체의 디지털 소개도 있다. 한국 정부의 **한류 문화**에 대한 중시와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5. 결론

한 국가의 주체성은 정치와 문화에서의 지위를 포함하고 국가, 민족, 문화에 대한 국민의 정체성, 귀속감을 포함한다. 본고는 주로 지역 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주체성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중사학으로 문화 교육을 하고 역사의 영향을 받은 주체적 근경을 해결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는 문화의 기억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것이다. 한국은 역사를 활용하여 역사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영화, 박물관, 건축 등 우리는 모두 **역사의 재현**을 볼 수 있다. 그들 자체는 말을 할 수 없어지만 계속 "**해석시킨다**,"**보인다**,"**강조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첨부했다. 이런 문화장역에서 우리는 한국의 반일, 중국 못지않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과거 일본과 중국은 항상 한국의 주체성을 해치는 요소로 존재했는데, 한국이 역사가 초래하고 싶다면 바로 이 두 방향부터 시작할야 했다. 우리는 전쟁박물관, 서대문형무소, 고궁박물관, 경복궁에서 한국의 문화장역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준 **역사적 그림자**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한국은 **현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는 역사박물관, 전쟁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을 보면 필자에게 대만의 상황을 도 생각이 나다.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교육은 완전히 다르다. 주로 식민지 역사에 보였다. 이런 차이는 전쟁후 양국 정부의 서로 다른 가치 고려를 볼 수 있다. 또한 대만도 대중사학의 문화교육 실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형무소, 한국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전시에 비해 대만은 일본식 스타일의 레저 단지로 개조했을 뿐 아쉽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체성 문제는 역사적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이며, 전후 국가 주체성 회복도 확실히 급박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어려움 해결 방법을 과거와 현대 두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관점에서 문화교육 장소에서 역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중화본위의식**으로 한국을 인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지만 역사의 진실이 항상 표면적인 것처럼 아니다. 역사에 대해 **인위적인** 강화나 약화가 진정한 인식에 불리하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역사에 대해 우리는 항상 의심을 가져야 한다.